

한국번역학사 기술을 위한 전제와 시론*

이 영 훈
(고려대)

1. 연구배경

1.1 연구동기

본 연구는 번역학과 관련된 최근의 두 가지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하나는 지난 2012년 2월 22일 *Global Media Journal* 캐나다판에 실린 살라 바살라마(Salah Basalamah)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통번역대학 교수와 알렉시 누스(Alexis Nuss) 영국 카디프대학교 유럽학부장 겸 번역학 전공 주임교수 간의 대담¹⁾이다. 서구 번역학사 40년(1972-2012)을 기념한 이 인터뷰에서 누스 교수

* 본 논문의 준비 과정에서 한국고전, 중국 및 일본 관련 자료의 수집과 해독에 도움을 준 용인대 중국학과 이동철 교수, 경상대 한문학과 장원철 교수, 고려대 고전번역협동과정 이현주 박사과정생, 고려대 불문과 이유진 학부생,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정정 박사과정생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한다.

1) Salah Basalamah, “Un bilan de 40 ans de traductologie : Entrevue avec Alexis Nuss”, *Global Media Journal – Canadian Edition*, 5(1), 2012, 29-37.

는 서구 번역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진단을 내리고 있다. 1972년 8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응용언어학 국제학술대회에서 행해진 제임스 홈즈(James S. Holmes)의 학술발표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가 서구 번역학의 학문적 탄생을 알린 이래 서구 번역학은 제도권 학문(discipline universitaire)으로 안착하였다. 그런데 번역학의 탄생 배경에는 70년대 서구 대학내 어문계 학과의 전반적 위기가 자리잡고 있으며, 번역학은 서구 대학에서 입지가 좁아진 어문학이 대학 내에 새로운 학문공간을 만들기 위해 번역이라는 대상을 차지한 결과 만들어진 것이었다. 40년의 서구 번역학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결과적으로 제도권 학문으로서 번역학은 연착륙을 했을지 몰라도 상아탑 공간 밖에서는 번역 방식에 대한 개선과 번역과 관련된 사회 문제의 해결에 번역학이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따라서 서구 번역학이 당면한 과제는, 누스 교수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제도적 성공에 대한 자기도취에서 벗어나 번역 실천 및 사회 현실과 관련된 번역학의 역할을 재정의하기 위해 자기성찰(examen de conscience)에 힘쓰는 것이다.

우리의 연구를 촉발시킨 또다른 사건은 한국번역학회의 학회지 『번역학연구』가 2013년 교과부 산하 학술정책자문연구회 주관 ‘우리나라 학자들의 학술지 선호도 조사’ 결과 국내 5,634개 학술지 중 우수 학술지 66개에 포함됨으로써 국내 대표 학술지에 선정²⁾된 것이다. 이번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와 논란이 없진 않았지만, 『번역학연구』의 이름이 국내 대표 학술지 66개 목록에 실린 것 자체 만으로도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 번역학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성공이 실제 한국 대학 사회에서 번역학의 위상정립의 계기가 되어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도적 안착, 더 나아가 사회적 인정(social recognition)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위 두 가지 사건을 두고 우리는 서구의 번역학사와 한국의 번역학사를 비교해보고 그 상관관계를 따져보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미 서구 번역학의 흐름 속에서 한국 번역학의 좌표를 설정하고, 한국 번역학의 발자취를

2) 2013년 1월 15일자 중앙일보 기사 “한국판 Cell 꿈 ... 대표 학술지 66개 첫 선정”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240/10418240.html?ctg=>>

과약하려는 시도가 김지원(2000, 2004), 유명우(2000), 김정우(2006, 2012)³⁾ 등 세 선배학자들에 의해 시도된 바 있었기에, 우리는 이들의 작업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향후 시도될 한국번역학사 기술의 전제들을 따져보고 그 시론을 모색하는 것을 과업으로 삼았다.

1.2 연구질문

한국번역학사의 탐구를 목표로 한 우리의 연구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음의 네 가지 연구질문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한국번역학사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번역학이 분과학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과연 학문의 사회적 정의는 무엇이며, 독립학문으로서의 번역학의 성립조건은 무엇인가? 둘째, 오늘날 국내의 학문체계는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의 것을 받아들여 성립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한국의 번역학도 서구의 번역학, 가령 ‘Translation Studies’에서 비롯된 수입학문인가 아니면 우리의 번역전통에 기반을 둔 자생학문인가? 셋째, 만일 한국의 번역학이 서구로부터 ‘번역된’ 것이라면 한국 번역학의 원전에 해당하는 서구 번역학의 기원과 그 역사적 기점은 무엇인가? 넷째, 한국 번역학의 정립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고, 한국번역학사의 변곡점을 구성하는 사건들은 무엇인가?

위의 네 가지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즉 서구 및 한국 번역학의 성립여부를 사회적, 역사적 관점에서 검증하고, 서구 번역학과 한국 번역학의 상관관계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번역학의 독립학문으로서의 성립조건을 탐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종 (백과)사전에 제시된 ‘학문(academic discipline)’의 정의를 두루 살펴보았으나 거기에 제시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답변만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 마침, 아민 크리슈난(Armin Krishnan)이 현대 학문의 학문성(disciplinarity)과 학제성(interdisciplinarity) 사이의 논쟁과 관련하여 학문의 여섯가지 구체적 특성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우리 논의의 근거로 삼게 되었다. 그에 따르면⁴⁾, 학문은 독자적인 연구대상, 관련된 전문지식, 고유한 이론과 개념, 전문용어, 고유한 연구방법, 고유한 제도

3) 구체적 서지사항은 참고문헌 목록을 보기 바란다.

4) Armin Krishnan (2009) ‘What are Academic Discipline?’, 9-10.

화로써 정의될 수 있다. 그 중 무엇보다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학문이 교육을 통해 전수될 수 있기에 크리슈난은 대학에 해당 학문 전공교수직의 설치가 이루어짐으로써 학문이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이제 크리슈난이 제시한 학문의 성립조건을 번역학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질문들로 표현될 수 있다. 번역학의 독자적 연구대상이 존재하는가? 번역학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존재하는가? 번역학에 고유한 이론과 개념이 존재하는가? 번역학의 전문용어가 존재하는가? 번역학에 고유한 연구방법이 존재하는가? 번역학에 고유한 제도(학과목, 학과, 학회, 전공교수직 등)가 존재하는가? 우리는 이제 번역학의 독자학문으로서의 성립조건에 해당하는 위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서구번역학사와 한국번역학사를 탐험하고자 한다.

2. 서구 번역학의 기원과 역사적 기점

2.1 서구 번역학의 제도화 양상

다니엘 질(Daniel Gile)은 서구 번역학의 제도화에 관한 최근 논문⁵⁾에서 전문직종(professional occupation)으로서의 번역(통역 포함)의 제도화는 오랜 기간 서구 여러 나라에 걸쳐 충분히 진행되었으나 통번역 제반분야에 관한 연구를 포괄하는 분과학문(academic discipline)으로서의 번역학의 제도화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질 교수에 따르면, 서구에서 번역의 전문직종화는 번역가 양성기관 및 번역가협회의 설립, 번역가 윤리강령 제정, 정부 및 국제기구 내 번역관련 행정직제의 설치 등을 통해 속속 이루어져 왔다.

한편, 번역학의 분과학문화는 번역학 전문학술지의 창간, 번역학 전공 및 번역학과와 설립, 번역학연구소 및 번역학회, 번역학 전문출판사의 설립, 번역학 총서의 발간 등으로 그 토대가 마련되었으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질의 판단이다. 먼저, 서구에는 통번역 전문교육기관을 보유한 국가는 많으나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곤 번역학과가 대학에 설치된 나

5) 'Institutionalization of Translation Studies', Yves Gambier & Luc van Doorslaer (eds.) (2012),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ume 3, 73-80.

라가 많지 않고, 번역이 대체로 문학 및 현대 언어(modern languages) 연구 틀 내에서 언어 실습 및 언어 활동 중 하나로 간주되어 대학과 사회로부터 고유한 제도적 명칭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 번역학 관련 학술지들은 ERIH(the European Reference Index for the Humanities)처럼 학술지의 등급을 심사하는 국제기관으로부터 번역학이라는 독립적 분과학문이 아닌 언어학의 범주 속에서 평가되고 있어⁶⁾ 이 점 역시 번역학의 제도적 인정(institutional recognition)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비록 서구 번역학계 내에서 번역학은 진정한 분과학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서구 번역학은 실제 존재하나 앞으로 그 학문적 제도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번역가 양성 프로그램에 연구 부문을 포함시켜 교수자 및 대학원생들에게 연구를 승진 및 졸업 요구조건으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 파리통번역대학원(ESIT)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다니엘 질의 주장이다.

질이 갈망하는 서구 번역학의 제도적 인정은 크리스난에게서 비롯된 번역학의 여섯 가지 성립조건들 중 제도적 조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제도화는 학문의 탄생 시점보다는 발전 단계에 적합한 요구조건이므로 우리는 서구 번역학의 기원을 관련 학술적 사건과 명칭의 고안에서 찾고자 한다.

2.2 서구 번역학의 기원: 학술이벤트

서구에서 출간된 각종 번역학 입문서, 번역이론 개설서, 번역학 역사서⁷⁾ 등에서는 흔히 서구 번역학의 탄생을 알린 사건으로 주저 없이 제임스 홈즈(James S. Holmes)가 1972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3회 응용언어학 국제학술대회에서 행한 학술발표⁸⁾를 꼽는다. 미국 태생으로 암스테르담대학 교수

6) ERIH는 유럽과학재단(European Science Foundation)이 관장하는 인문학 학술지 평가 서비스이다. 한편, 미국에 거점을 둔 다국적 정보통신회사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학술지 인용색인 A&HCI(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에는 번역학 관련 학술지들이 언어학(Linguistics) 및 문학(Literary Studies) 범주에 나누어 편입되고 있다.

7) Jeremy Munday (2012: 15), Edwin Gentzler (1993: 90), Mary Snell-Hornby (2006: 3)

8)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paper presented in the Translation Section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Linguistics (Copenhagen,

있던 홈즈의 발표문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은 제목 그대로 오늘날 서구 번역학의 명칭과 연구 청사진을 제시한 획기적인 성과로 인정되고 있으며, 본 논문의 서두에 언급한 바살라마와 누스 간 대담에서 서구 번역학 40년 역사의 기원이 되는 사건인 셈이다. 홈즈는 본 논문에서 기존 또는 당시 번역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번역을 응용언어학 내지 비교문학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달리 번역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의 설립을 제안하였고, 그 구체적 연구분야를 설계하여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던 번역 연구를 체계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홈즈는 자신이 주창한 학문에 대한 명칭으로 ‘Translation Studies’를 제안하여 오늘날 영어권 국가들에서는 물론이고, 지구촌 국제화의 영향으로 인한 영어 중심의 번역학 연구⁹⁾에서는 본 명칭이 번역학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학자들에 따라서는 1976년 벨기에 뢰벤에서 ‘문학과 번역’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¹⁰⁾를 서구 번역학의 창립 학술대회(*colloque fondateur*)¹¹⁾로 간주하기도 한다. 홈즈와 그의 뢰벤대학 제자들이 주도한 이 학술대회는 홈즈가 1972년 제안한 Translation Studies의 명칭과 그에 따른 연구 청사진을 비준하는 자리였다. 이 점은 다음의 두가지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학술대회

21-26 August 1972). 본 발표 원고는 *Indi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의 13권 (1987)과 *Rodopi*에서 출간된 홈즈의 논문 모음집 *Translated!* (1988)에 각기 약간씩 다른 판본으로 실려 보전되어 왔다.

9) 마리 스넬-혼비는 2010년 논문(‘Is Translation Studies going Anglo-Saxon? Critical comments on the globalization of a discipline’)에서 현대 ‘번역학의 과도한 영어화(“Anglicisation” of Translation Studies)’를 지적하고, 그 부정적 파급효과로 영미쪽 담론의 주도하에 번역학이 국제적, 범문화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다시 언어학 내지 영어학의 범주로 편입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10) Colloquium “Literature and Translation” held at the Katholieke Universiteit te Leuven (Leuven, 27-29 April 1976). 한편, 마리 스넬-혼비(Mary-Snell Hornby 2006: 26)와 클로드 보케(Claude Bocquet 2006: 27)에 따르면, 1965년 ‘Übersetzungswissenschaft’란 제목과 함께 번역을 주제로 한 최초의 국제학술대회가 라이프찌히대학교에서 열렸다.

11) Edwin Gentzler (1998) ‘Foreword’, Susan Bassnett & André Lefevere (eds.) *Constructing Cultures, Multilingual Matters*, ix. Johan Heilbron & Gisèle Sapiro (2002) ‘La traduction littéraire, un objet sociologique’,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44, 4, note 5.

발표문들은 1978년 출판되었는데, 이 책의 서문에 따르면, 본 학술대회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당시 번역학의 주요 관심사들을 논의하는 것(discuss major topics in present-day translation studies)”¹²⁾이었다. 또한 본 단행본에 부록으로 포함된 앙드레 르페브르(André Lefevere)의 미발표 원고 ‘Translation Studies: The Goal of the Discipline’¹³⁾는 분과학문으로서 번역학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홈즈가 1972년 제안한 ‘Translation Studies’라는 명칭을 번역학에 대한 공식 명칭으로 제안하고 있다.

2.3 서구 번역학의 기원: 명칭의 탄생

홈즈가 1972년 학술발표에서 처음 제안하고, 1976년 국제학술대회에서 공인을 받은 ‘Translations Studies’라는 이름은 서구의 번역학과 관련된 최초의 명칭은 아니었다. 사실, 홈즈 자신도 1972년 논문에서 번역학의 정립을 가로막는 주된 요소 중 하나가 이 학문을 지칭할 독자적 명칭의 부재로 보고, 기존의 관련 명칭들을 차례로 검토하였다¹⁴⁾. 그런데 영어에서 사용되는 각종 비공식적 명칭들(the art/craft/principles/fundamentals/philosophy of translation)은 너무 개인적이거나 일시적인 반면, 그리스어와 라틴어 어원을 기반으로 조성된 신조어들(translatology, traductologie, translaticistics, translistics, metaphorology, metaphraseology, metaphrastics)은 가독성이나 수용성 면에서 부적합하다는 것이 홈즈의 판단이었다. 더 나아가 당시 널리 쓰이고 있던 ‘번역이론(theory of translation/translating)¹⁵⁾’이란 표현은 홈즈가 지향하는 번역학이 이론적 연구 이외에도 많은 분야를 포괄하는 만큼 폭이 좁아 보이며, 독일어권에서 시작되

12) James S. Holmes, José Lambert & Raymond van den Broeck, *Literature and Translation*. New perspectives in literary studies with a basic bibliography of books on translation studies, ACCO, 1978, vii.

13) 위의 책 234-235.

14) Holmes (1988: 68-70)

15) ‘Theory of Translation’이란 표현은 윌리엄 하이스(William Haas)의 1962년 논문(‘The Theory of Translation’, *Philosophy*, 37(141), 1962, 208-228)에서 처음 발견되며, 해당 불어 표현인 ‘théorie de la traduction’은 조르주 무냉(Georges Mounin)의 1963년 저술(*Les problèmes théoriques de la traduction*, Gallimard)에서 처음 확인된다.

어 영어권에 전파된 ‘번역과학(Übersetzungswissenschaft, science of translation/translating)¹⁶⁾’이란 명칭 또한 번역학이 아직 언어학처럼 엄밀성과 형식화를 추구할 단계가 못된다는 점에서 홈즈는 적절치 않다고 보았다. 결국, 당시 영어권에서 자연과학이 아닌 인문학에 해당하는 신생학문을 가리킬 때 Studies라는 명칭(American studies, communication studies 등)이 흔히 쓰였으므로, 홈즈는 번역학의 총칭어로 ‘Translation Studies’를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1976년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공인을 받은 것이다.

홈즈는 이렇게 해서 번역과 관련된 새로운 학문의 공식 명칭이 정착되고, 용어를 둘러싼 혼란과 오해가 없어지길 바랐겠지만, 불어, 독어권은 물론이고, 영어권 번역학계에서조차도 논란이 지속되었다. 1990년 암스테르담대학교 번역학과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홈즈에게 헌정된 심포지움¹⁷⁾ 기조연설에서 마리 스넬-혼비¹⁸⁾는 홈즈가 제안한 ‘Translation Studies’라는 명칭은 1972년 논문 발표 당시 통역을 제외하고 문학번역을 중심으로 한 ‘문어번역(written translation)’ 연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으며, 본 명칭이 채택된 영어권 학계에서조차 여전히 문학번역과 연관되고 심지어 비교문학의 한 분야로 이해되고 있다¹⁹⁾고 안타까워하였다. 한편, 홈즈의 벨기에 제자이며, 기테온 투리(Gideon

16) ‘Science of Translating’, ‘Science of Translation’은 유진 나이다(Eugene Nida)의 1964년 저술(*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nciples and Procedures Involved in Bible Translating*, Brill Archive)에서, 그 불어 번역 ‘science de la traduction’은 조르쥬 무냉의 1967년 논문(‘Linguistique et traduction’, *Revu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1-2: 41-46)에서 처음 발견된다.

17) Kitty M. van Leuven-Zwart & Ton Naaijken (eds.), *Translation Studies: the State of the Art*, Proceedings of the First James S. Holmes Symposium on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17-19 December 1990). Amsterdam: Rodopi, 1991.

18) (1991) ‘Translation Studies – Art, Science or Utopia’, 위의 책, 13-23. 최초의 서구 번역학사를 기술하였고, 유럽번역학회 창립을 주도한 바 있는 스넬-혼비는 자신의 저술 제목(*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1988,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2006)과 유럽번역학회(European Society for Translation Studies) 공식명칭에 ‘Translation Studies’를 사용함으로써 서구번역학계에 본 명칭이 전파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19) 에드윈 겐츨러(Edwin Gentzler)가 현대 번역학 이론을 개괄하는 저술(1993: 101-104)에서 홈즈, 베스넷, 르페브르, 랑베르 등의 초기 번역학 연구를 문학사 연구와 연관짓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Toury)와 함께 기술번역학(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의 토대를 세운 조제 랑베르(José Lambert)²⁰⁾에 따르면, 홈즈는 1972년 당시 번역학이 분과학문으로서 아직 초보적 단계(primitive)였고, 번역학이 단순한 실용적 지식이나 과학적 연구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고, 번역학에 과학이나 이론 보다 ‘잠정적이고 열린 범위(tentative and open range)’를 부여하기 위해 ‘Translation Studies’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 용어는 ‘Science of Translation’의 막연한 등가어로 인식되었고, 다수의 번역이론가들에게는 번역학의 공식 명칭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더구나 ‘Translation Studies’는 홈즈의 의도와는 반대로 ‘Literary Translation Studies’의 의미나 심지어 투리 식의 ‘번역문학 연구’의 의미로 축소되어 이해되기도 하였으며,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만 통용되는 용어로 치부되기도 하였다²¹⁾. 끝으로, 우연인지는 몰라도 번역학자들 가운데 ‘Translation Studies’라는 명칭의 사용자들이 대학의 문학과 소속²²⁾이어서 문학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에 이 용어는 ‘(비교)문학 연구’와 연결되는 경향이 있었다.

홈즈가 제안한 ‘Translation Studies’가 점차 영미권을 중심으로 넓은 의미의 번역 연구를 가리키는 번역학의 표준 명칭으로 자리잡아 갔지만²³⁾, 다른 언어

20) (1991) ‘Shifts, Oppositions and Goals in Translation Studies: Towards a Genealogy of Concepts’, 위의 책, 25-37.

21) 프랑스에서 ‘Translation Studies’는 주로 벨기에,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전체 출판물 가운데 번역물의 비중이 높고, 다언어 사용이 관례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전한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를 가리킨다. 조양 엘브롱과 지젤 사피로(Johan Heilbron & Gisèle Sapiro)의 2007년 논문(‘Pour une sociologie de la traduction : bilan et perspectives’, 2)과 미카엘 우스티노프(Michaël Oustinoff)의 2007년 논문(‘Les « translation studies » et le tournant traductologique’, 1)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2) 홈즈를 비롯하여 투리, 랑베르, 베스넛, 르페브르 등 ‘Translation Studies’의 주창자들이 대학의 문학과 소속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23) “In his seminal article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James Holmes argued for the adoption of ‘translation studies’ ‘as the standard term for the discipline as a whole’ (1972/1988) and other scholars have since followed suit. At one time, the term ‘translation studies’ implied more emphasis on literary translation and less on other forms of translation, including interpreting, as well as a lack of interest in practical issues such as pedagogy, but this is no longer the case.

권, 예를 들어 독어 및 불어권에서는 이 표현의 등가어²⁴⁾를 찾기가 수월하지 않았고, 따라서 홈즈 이전에 제안된 독일어 명칭과 불어 명칭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독일어권에서는 일찍이 오토 카데(Otto Kade)를 비롯한 라이프찌히학파가 1963년에 제안한 ‘Übersetzungswissenschaft’²⁵⁾이 언어학적 번역학 뿐만 아니라 번역학 일반의 의미로 사용되는 한편, 독일어의 번역(Übersetzen)과 통역(Dolmetschen)을 아우르는 ‘일반 번역학’의 의미로 1980년 한스 페르메어(Hans Vermeer)²⁶⁾가 ‘Translatiöswissenschaft’를 1985년 유스타 홀츠-멘테리(Justa Holz-Mänttari)²⁷⁾가 ‘Translatologie’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불어권에서는 로제 고프랭(Roger Goffin)이 1968년 언어학적 번역학 연구를 위해 ‘traductologie’를 제안하였으나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그가 1971년 제시한 영어 표현 ‘translatology’²⁸⁾에 대해 1972년 캐나다의 언어학자 겸 번역학자인 브라이언 해리스(Brian Harris)가 불어 번역어 ‘traductologie’²⁹⁾를 제안한 것이 불어권에서

‘Translation studies’ is now understood to refer to the academic discipline concerned with the study of translation at large, including literary and non-literary translation, various forms of oral interpreting, as well as DUBBING and SUB-TITLING.” (Mona Baker, “Translation studies”, Mona Baker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1st edition, Routledge, 1998/2001, 277.)

- 24) 최근 독일에서 출간된 독·영·불 3개국어 번역학 백과사전(Harald Kittel, Armin P. Frank, Norbert Greiner (eds.) (2004-2011) *Übersetzung/Translaton/Traduction.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zur Übersetzungsforschung/A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Encyclopédie internationale de la recherche sur la traduction*. 1-3. Berlin: Walter de Gruyter.)의 부제가 영어 ‘Translation Studies’의 번역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Übersetzungsforschung’이나 ‘recherche sur la traduction’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학문 명칭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
- 25) Otto Kade (1963) ‘Aufgaben der Übersetzungswissenschaft’, *Fremdsprachen*, 7(2): 83-94.
- 26) “Die Sitten des Staates, die zwei Übel verwüsteten!—Ein Kapitel angewandte Translationswissenschaft”, *Linguistica Antverpiensia* 14: 251-276.
- 27) ‘Entwurf für einen Studiengang Translatologie und einen Promotionsstudiengang Translatologie’, *Kääntäjät - Översättarna* 3: 4-6.
- 28) ‘Translatology’라는 명칭은 덴마크에서 1993년에 창간된 번역학 학술지의 제목 (*Perspectives : Studies in Translatology*)으로 채택된 바 있다.
- 29) 2012년도 Wikipedia 불어판(<http://fr.wikipedia.org/wiki/Traductologie>)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traductologie’라는 용어를 장-르네 라드미랄(Jean-René Ladmiral)이 처음

는 번역학 일반을 가리키는 총칭어로 자리 잡았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서구 번역학을 지칭하는 영어, 불어, 독어 명칭은 두 가지 다른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먼저, ‘Translation Studies’³⁰⁾는 문학번역 연구에서 출발하여 통번역 일반의 연구로 확장된 것이고, ‘Übersetzungswissenschaft’와 ‘traductologie’³¹⁾는 언어학을 학문적 모범으로 삼아 과학적 번역학을 지향하는 번역학의 흐름 속에 위치한 것이다. 따라서, 영어와 불어가 공용어인 캐나다 번역학회의 공식명칭 ‘Canadian Association of Translation Studies/Association canadienne de traductologie’는 이 두 가지 전통이 수렴된 결과이다.

2.4 서구번역학사: 제도적 기점

이제 서구 번역학의 역사를 제도적 관점에서 수놓은 기점이 될만한 사건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다니엘 질의 입장(2012)과는 달리 번역의 제도화와 번역학의 제도화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상호 연관성 속에서 서구 번역학사의 전개를 파악하고자 한다.³²⁾ 이러한 관점은 제레미 먼데이(Jeremy Munday)의

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정확한 출처를 찾을 수 없었다.

30) 안소니 뎀(Anthony Pym)은 1992년 저술(*Translation and Text Transfer*, Peter Lang, 181)에서 번역학의 학제성을 도모하고, 번역 이론과 번역 실천 사이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해명을 위해 영어에서 번역학을 지칭하는데 ‘translation studies’와 같은 일반 용어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31) 프랑스 대학교수들의 권익보호와 경력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자문 및 심의기구인 전국대학위원회(Conseil national des universités, CNU)의 홈페이지(<http://www.cpcnu.fr/listes-des-sections-cnu>)에 따르면, 번역학(traductologie)은 학문 분과별 분류 중 어문 및 인문(Lettres et sciences humaines) 범주하에 영미어문학(Langues et littératures anglaises et anglosaxones)의 하위 분야로 지정되어있고, 언어과학(Sciences du langage)이나 다른 어문학의 영역에는 포함되어 있지않다. 다만, 비교문학(Littératures comparées)의 하위 영역에 ‘번역(traduction)’이 통합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프랑스 대학 내의 교수직 전공 분류가 변화하는 학문적 현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32) 이는 번역학사의 기술에 번역사는 한편으론 번역학의 선사(先史)로서 다른 한편으론 번역학과 번역 실천의 유기적 관계로 인해 필연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0년 논문³³⁾과 그의 번역학 개설서³⁴⁾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서구 번역학사는 번역의 제도화³⁵⁾가 번역학의 제도화를 선행하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30년 소련에 모스크바 현대언어학교(Moscow Institute of New Languages)³⁶⁾,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번역통역학교(Institut für Übersetzen und Dolmetschen)가 설립됨으로써, 근대적 전문 통번역인력 양성 기관이 탄생했다³⁷⁾. 1953년 세계국제회의통역가연맹(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interprètes de conférence, AIIC)이, 같은 해 파리에서 국제번역가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traducteurs, FIT)이 창립됨으로써 통번역 직종의 국제적 조직이 만들어졌다. 1954년 파리에서 FIT 창립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1955년 John Benjamins 출판사에서 FIT 기관지 *Babel*이 창간되었으며, 1955년부터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에서 번역가 대상 학술지 *Meta: journal des traducteurs /Meta: Translators' Journal*을 발행하고, 1968년 브뤼셀 통번역전문학교(Institut

33) 'Translation Studies', Yves Gambier & Luc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ume 1, 419-428.

34) Jeremy Munday (2012)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3rd edition, 10-13.

35) 서구 번역의 제도화와 관련해서 Jeremy Munday (2012)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chapter 1, Main Issues in Translation Studies, Daniel Gile (2012) 'Institutionalization of Translation Studies', Monique Caminade (2011) 'L'institutionnalisation de la formation des traducteurs et des interprètes au XXème siècle', Monique Caminade & Anthony Pym (2001) 'Translator-training institutions', José Lambert (2013) 'Prelud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discipline' 등을 참고하였다.

36) 현재 명칭은 모스크바 주립 언어대학교(Moscow State Linguistics University, Моск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лингвистиче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МГЛУ)이다.

37) 이후 1941년 Genève 통번역학교를 필두로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Vienna (1943), Graz (1946), Innsbruck (1946), Germersheim (1947), Sarrebruck (1948), Roma (1951), Milano (1951), Munchen (1952), Bruxelles-Marie Haps (1955), Leipzig (1956), Paris-ESIT (1957), Paris-ISIT (1957), Bruxelles-ISTI (1958), Aarhus (1961), Antwerpen (1961), Mons (1961) 등 유럽 각지에 대학 수준의 통번역학교가 연이어 설립되었다. 미국에서는 1949년 Georgetown 대학교에 처음 통번역 교육과정³⁷⁾이 열렸으며, 1960년대 초에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에 통번역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1962년 세계통번역대학대회(Conférence internationale des instituts universitaires de traducteurs et d'interprètes, CIUTI)가 조직되어 세계각국 대학의 통번역가 양성 프로그램의 표준화를 이끌고 있다.

Supérieure de Traducteurs et Interprètes, ISTI) 내에 번역문제연구소(Centre d'étude des problèmes de la traduction)가 설립되어 통번역 실무에 대한 학술적 연구기반이 마련되었다. 끝으로, 파리 통번역전문학교(L'École Supérieure d'Interprètes et de Traducteurs, ESIT)에 1976년부터 번역학 학술학위과정인, 1978년부터 통번역 전문학위과정이 설치되었고, 1970-1980년대에 ESIT의 학위 프로그램이 유럽 각국에 퍼짐으로써 서구 통번역의 교육 및 학술 차원의 제도화가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서구 번역학의 제도화는 1980년 수잔 베스넷-맥과이어(Susan Bassnett-McGuire)가 최초의 번역학 개론서인 *Translation Studies*를 Methuen 출판사에서 발간하고, 1987년 오타와에서 캐나다번역학회 (Canadian Association of Translation Studies, CATS/Association canadienne de traductologie, ACT)가 창립³⁸⁾ 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1988년에는 이태리 Trieste대학에서 통역학 전문학술지 *The Interpreters' Newsletter*가, 같은 해에 캐나다 번역학회 기관지 *TTR: traduction, terminologie, rédaction*가 창간되고, 1989년부터 기테온 투리와 조제 랑베르 주도로 John Benjamins 출판사에서 번역학 전문학술지 *Target: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가 발간됨으로써 번역학의 학술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역시 1989년 벨기에 Leuven가톨릭대학교에서 조제 랑베르 주도로 번역학 박사과정생들을 위한 특별연구과정(Research Programme in Translation Studies)³⁹⁾이 개설되고, 초대 교장으로 기테온 투리가 취임함으로써 번역학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형성된 번역학 연구자 공동체는 1992년 비엔나에서 유럽번역학회(European Society for Translation Studies, EST)가 창립되고, 제1회 학술대회가 개최됨으로써 국제조직화하였다⁴⁰⁾. 1994년

38) 미국통번역학회(America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Association, ATISA)는 2002년 켄트에서 창립되었다.

39) 오늘날 CETRA번역학 여름학교(CETRA Research Summer School)로 알려진 이 특별 교육프로그램은 이후 모나 베이커(Mona Baker)가 중심이 되어 영국 맨체스터, 런던, 에딘버러 3개 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번역연구여름학교(Translation Research Summer School, TRSS), 안소니 핼이 주관하는 스페인 Rovira i Virgili 대학의 번역-문화교류학 석박사과정 프로그램(Doctorate/Research Masters in Translation and Intercultural Studies)의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40) 1995년 영국 카디프에서 유럽영상번역학회(European Association for Studies in

부터 John Benjamins 출판사에서 Benjamins Translation Library가 발간되고, 1995년 번역학 전문출판사 St Jerome이 설립되었으며, 1998년 Routledge 출판사에서 Mona Baker 주관하에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의 초판이 발간됨으로써 서구 번역학 연구의 확장 및 전파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마침내, 2004년 서울에서 세계번역과문화교류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ranslation and Intercultural Studies, IATIS)가 창립되고 제1회 학술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됨으로써 서구 번역학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여타 지역을 포괄하여 국제화를 이루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3. 중국과 일본의 번역학 사정

서구 번역학의 탄생 과정과 그 역사적 분기점들을 살펴본 지금, 한국번역학사 기술을 시도하기에 앞서 중국과 일본의 번역학 형성 과정을 명칭 문제와 제도화를 중심으로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의 영향 하에 놓였고 한국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어온 중국과 일본의 사정을 먼저 탐색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의 번역학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단계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3.1 중국의 번역학⁴¹⁾

중국어판 위키백과사전⁴²⁾을 검색해보면 영어 ‘Translation Studies’는 중국어 翻譯研究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중국의 百度百科⁴³⁾에는 ‘译学’과 ‘翻译学’의 항목이 모두 존재하나, 중국어 어학사전에는 ‘译学’만이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고, 翻译学은 찾아볼 수 없다. 牛云平的 2007년 논문에 따르면⁴⁴⁾,

Screen Translation, ESIST)가, 2003년에는 이베리아 통번역학회(Asociación Ibérica de Estudios de Traducción e Interpretación, AIETI)가 창립되었다.

41) 중국번역학의 변천과정과 현황에 대해서는 최지영(2005), 김혜림(2012), Zaixi Tan (2008)을 주로 참고하였다.

42) <http://zh.wikipedia.org/wiki/翻譯研究>

43) <http://baike.baidu.com/>

중국에서 ‘翻译学 / 译学’은 1898년 张之洞이 출간한 《劝学篇》에 처음 등장한다. 아쉬운 것은 중국 고전문헌에서 두 어휘의 출처를 찾지 못해 그 초출을 확인하지 못한 점이다.

중국에서 번역연구의 출발점은 대체로 중국의 대외개방이 시작된 1978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⁴⁵⁾. 1971년 홍콩중문대학에 翻譯研究中心 (Research Centre for Translation, RCT)이 설립되었고, 香港翻譯學會(Hong Kong Translation Society)가 창립되었으나 영문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번역가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조직이었다. 1980년 中国对外翻译出版公司에서 학술지 <翻译通讯>이 발간되기 시작하였고, 1982년 중국 본토 전문번역가들이 조직한 中国翻译协会(Translators Association of China, TAC)가 창립되면서 이 학술지는 <中国翻译>으로 개칭하여 中国翻译协会的 기관지가 되었다.

香港翻譯學會나 中国翻译协会的 활동이 중국에서 번역학 연구자들 간의 전국규모 학술조직인 ‘중국번역학회’로 발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중국 번역학의 특수성 논쟁이, 90년대말에는 번역학의 과학성 논쟁이 발생하여 번역학에 대한 활발한 연구⁴⁶⁾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중국 번역학의 역량은 중국에서 출간된 번역학 관련 저술들과 특히 2001년 The Chinese University Press에서 발간된 Chan Sin-wai & David Pollard 공편 *An Encyclopaedia of Translation: Chinese-English, English-Chinese*와 2011년 上海外语教育出版社에서 발간된 方梦之 편저 『中国译学大辞典』에서 확인할 수

44) “在中国,“翻译学”/“译学”这个名词很早就已出现。1898年5月,张之洞刊出《劝学篇》,其中《外篇·广译》就提到了“译学”和“翻译之学”^[1] (pp127-128)。1920年代,梁启超^[2] (p115)、蒋翼振^[3] (p1)、林语堂^[4] (pp6-7); [5]、艾伟^[6]等学者也纷纷使用了“译学”一词。建国后,董秋斯^[7] (p543)又提出了“中国翻译学”之说。然而,他们都不是从当代意义的学科名称角度来使用这个词的。”(牛云平 2007, ‘翻译学的名与实’, 129)

45) “改革开放30年来,翻译研究在中国迅速发展”, “1978年改革开放” (许钧 & 穆雷 2009, ‘中国翻译学研究30年(1978-2007)’, 77 & 83)

46) 최지영(2005)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중국 특색 논쟁’이라 이름 붙여진 중국 번역학의 특수성 논쟁은 “중국의 전통적 번역론(譯論)과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통번역 연구의 자생적 지식 체계를 수립하자는 주장”(14)에 대한 찬반을 말하며, ‘과학성 논쟁’은 “통번역 연구가 독립된 학문 분과로 성립이 가능한가?”(11)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번역학의 과학성에 대한 논쟁을 벌인 것을 말한다.

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서 이미 여러차례 기획된 중국 번역학 특집호들과 서구의 번역학 전문학술지에 실리는 중국학자들의 논문들을 통해서도 중국 번역학의 저력은 매우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에서 전문적인 통번역 교육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시작되었다. 1972년 홍콩중문대학에 번역교육 과정이 처음 개설된 이래, 1988년 대만 輔仁大學 輔大翻譯學研究所에 통번역 전문 석사과정이 설치되었으나, 중국 본토에서는 1997년에야 廣東外語外貿大學에 최초의 번역교육 과정이 만들어졌다. 2000년 이후 통번역 전문대학원이 대거 설립되기 시작하고, 2003년에 드디어 上海外國語大學에 정부 공인 통번역대학원(高級翻譯學院)이 설치됨과 동시에 번역학 박사과정이 개설되었으며, 2006년 대학 학부에 번역학과의 설치가 중국 정부로부터 인가되었고, 2007년에는 일반대학원에 번역학 석사학위 과정이 도입됨으로써 중국의 전문 통번역자 양성과 번역학 교육이 본격화되어가는 양상이다.

3.2 일본의 번역학⁴⁷⁾

위키백과사전 일본어판⁴⁸⁾을 보면 영어 ‘Translation Studies’에 대한 일본어 번역은 ‘翻譯研究’로 되어있다. 그런데 각종 일본어 어학사전 및 백과사전에는 ‘翻譯学’은 물론이고 ‘翻譯研究’이라는 표제어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⁴⁹⁾. 타케다 카요코(武田珂代子)의 2012년 논문⁵⁰⁾에 따르면, 나루세 타케시(成瀬武史)가 1972년 유진 니다(Eugene A. Nida)의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을 『翻譯学序說』⁵¹⁾로 번역한 이래, 이타가키 신페이(板垣新平)가 ‘翻譯学’라는 표현을 1995년 자신의 동명 저서⁵²⁾에서 번역학의 명칭으로 처음

47) 일본 번역학의 역사와 관련하여 Judy Wakabayashi (2012b)와 Kayoko Takeda (2012), Yukari Fukuchi Meldrum (2007)을 주로 참고하였다.

48) <http://ja.wikipedia.org/wiki/翻譯研究>

49) 반면, ‘翻譯文学’이란 어휘는 각종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

50) Kayoko Takeda (2012) ‘The Emergence of Translation Studies as a Discipline in Japan’, Nana Sato-Rossberg & Judy Wakabayashi (eds.)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in the Japanese Context*, London: Bloomsbury, 11-32.

51) ユージン・A.ナイダ著 ; 成瀬武史訳 (1972)『翻譯学序說』, 開文社出版.

52) 板垣新平 (1995)『翻譯学』, 信山社出版.

사용하였다.

일본은 서구의 번역을 통해 근대화를 이룩했고, 현재도 ‘번역의 초강대국 (translation superpower)’⁵³⁾으로 꼽힌다. ‘번역 친화적(translation-friendly)’ 문화 환경⁵⁴⁾으로 인해, 일본에서 전문번역가 조직은 매우 일찌감치 만들어졌고, 복수의 협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역동성을 잘 알 수 있다. 1953년에 日本翻訳家協会(Japan Society of Translators)가 창립된 이래, 1981년 日本翻訳連盟(Japan Translation Federation)이, 1985년 日本翻訳者協会(Japan Association of Translators)가 연이어 설립되었다.

한편, 일본에서 번역학은 1970년대 이후 야나부 아키라(柳父章)의 ‘翻譯語’ 연구와 1978년 나루세 타케시의 영일번역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로 시작되었으나 당시 일본 학계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2000년까지는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연구만이 이루어졌다. 2000년에 비로소 日本通訳学会가 창립되고, 학회지 『通訳研究』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에 日本通訳翻訳学会(The Japan Association for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JAITS)로 학회명을 개칭하고, 학회지 명칭도 『通訳翻訳研究』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⁵⁵⁾. 2005년에는 미즈노 아키라(水野的)가 중심이 되어 일본통역(번역)학회 내에 번역학 연구모임이 결성되었고, 2007년부터 온라인 번역학 전문학술지인 『翻譯研究への招待(Invitation to Translation Studies)』⁵⁶⁾를 발간하고 있다. 2010년에는 교토에서 릿츠메이칸대학교 주최로 ‘日本における翻訳学の行方(Translation Studies in the Japanese Context)’를 주제로 한 일본 최초의 대규모

53) Judy Wakabayashi & Nana Sato-Rossberg (2012) ‘Introduction’, Nana Sato-Rossberg & Judy Wakabayashi (eds.)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in the Japanese Context*, London: Bloomsbury, 1.

54) Kayoko Takeda (2012) 25쪽.

55) Kayoko Takeda (2012 12쪽)에 따르면, 일본어의 ‘翻譯’은 ‘通訳’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문어번역(written translation)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일본에서 ‘翻譯学’ 또는 ‘翻譯研究’는 역시 문어번역만을 다루며, ‘通訳学’ 또는 ‘通訳研究’은 서구에서의 ‘Interpreting Studies’와 ‘Translation Studies’ 간의 관계와는 달리 ‘翻譯学’ 또는 ‘翻譯研究’의 하위분야가 아니라 그 자매학문으로 간주된다. Judy Wakabayashi (2012b 42쪽)에서도 이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6) <http://honyakukenyu.sakura.ne.jp/>

번역학 국제학술대회⁵⁷⁾가 개최되었다.

본 논문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발견한 야나부 아키라의 “『翻訳学』はなぜないのか⁵⁸⁾”라는 글에서 우리는 현재 일본에서의 번역학의 위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번역어의 성립 - 서구어가 일본 근대를 만나 새로운 언어가 되기까지』(2011, 마음사랑)라는 저술로 한국에도 소개된 바 있는 일본의 대표적 번역학자 야나부씨는 ‘번역학은 없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에 학문으로서의 번역학이 부재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編集者から、私の肩書きを「何学者」としますかと聞かれた。私の専攻は、英語で言えばtranslation studiesで、日本語では「翻訳学」となる。数学の研究者は「数学者」、哲学は「哲学者」で通用するから、私は「翻訳学者」でよさそうに思う。——しかしどうもひっかかる。こういう肩書きは目にしたことがない。なぜか？

日本には翻訳を理論的に研究している人はほとんどいない。他方、西洋では「翻訳学」がとても盛んである。西洋の翻訳学者が日本に来て、日本ではどうして翻訳研究がないのか、と不思議がる。翻訳書の出版では、日本はおそらく世界一なのだが。”⁵⁹⁾

일본은 각종 지식을 사전으로 체계화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외국에서 수입된 학문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왔다. 이 점에서 일본에 ‘번역학(백과)사전’이 부재하다는 사실은 번역학에 대한 일본의 관심의 정도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⁶⁰⁾. 또한, 비록 중국의 번역학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

57) 그 결과물이 이듬해 Nana Sato-Rossberg에 의해 출간되었다. cf. 佐藤=ロスベアグ・ナナ (2011) 『トランスレーション・スタディーズ』, 東京: みすず書房.

58) <http://www3.ocn.ne.jp/~manuke/trans.htm>

59) “편집자가 나의 칭호를 ‘어떤 학자’로 할지 물었다. 나의 전공은 영어로 말하면 translation studies이고, 일본어로는 ‘번역학’이 된다. 수학의 연구자는 ‘수학자’ 철학의 연구자는 ‘철학자’로 통용되기에 나는 ‘번역학자’가 좋을 듯하다. 그러나 어떤지 마음에 걸린다. 나는 이런 칭호는 본 적이 없다. 왜인가?

일본에서는 번역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편 서양에서는 ‘번역학’이 매우 번성하다. 서양의 번역학자가 일본에 와서 일본에서는 어째서 번역 연구가 없는지 의아해 한다. 번역서의 출판에서는 일본은 어쩌면 세계 1위일터.”

60) 반면 일본에는 번역문학과 관련하여 川戸道昭・榎原貴教編, 『図説翻訳文学総合

만, 서구에서 일본의 번역 전통 및 번역론에 적지 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 번역학자들의 연구 활동은 국제적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⁶¹⁾

일본에는 대학에 통번역전문대학원과 번역학과의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랫동안 번역회사나 사설 어학원에서 통번역 교육을 담당해왔다. 2002년에 비로소 동경의 릿교대학교(立教大学)와 코베여대(神戸女学院大学)에 통번역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석사과정이 개설되었고, 2003년에는 동경외국어대학교(東京外国語大学)에 통역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⁶²⁾.

4. 한국번역학사 시론

아민 크리슈난이 규정한 학문의 성립조건과 다니엘 질이 제시한 번역학의 제도화 양상 측면에서 서구 번역학은 학계에서 분과학문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였고, 제도화 측면에서도 대학 내 번역학과 설치가 미진한 점을 제외하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중국과 일본의 번역학 사정은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다. 중국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번역실무의 조직화가 이루어진 것에 비해 통번역 전문교육과정이 대학에 뒤늦게 설치되는 바람에 통번역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고, 일찌감치 점화된 번역학 연구의 열기에 비해 학술조직의 제도화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번역학의 사회적 정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하물며, 일본은 오랜 번역전통과 번역시장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번역학이 학계에서 분과학문으로 인정받는데 실패하였고, 학술적·교육적 제도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번역학의 사정은 어떠한가? 한국 번역학의 성립조건은 다음의 네 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 번역학의 독자적 연구대상과 고유한 전문지식이 존재하는가? 한국 번역학에 고유한 이론과 연구방법이 존재하

事典』(全5卷, ナダ出版センター, 2009)와 같은 대저가 존재한다.

61) 다만 호주 출신의 주디 와카바야시(Judy Wakabayashi)와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카이 나오키(Sakai Naoki) 등이 개인적으로 일본 번역학의 국제적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62) Kayoko Takeda (2012) 17 & 21쪽.

는가? 한국 번역학에 고유한 개념 및 전문용어가 존재하는가? 한국 번역학에 고유한 제도(학과목, 학과, 학회, 전공교수직 등)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시도하는 한국번역학사 기술은 이 네 가지 질문 외에도, ‘한국 번역학은 ‘Translation Studies’에서 비롯된 수입학문인가? 자생학문인가?’, ‘한국 번역학의 기원과 기점은 무엇인가?’처럼 본 논문의 서두에서 제기한 연구질문들에 대한 답변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4.1 한국 번역학의 뿌리와 정립시기

먼저, 한국의 번역학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선배 학자들의 고견을 들어보기로 하자. 한국번역학회 창립의 주역들인 김지원과 유명우는 서구 번역학의 역사에서 한국 번역학 성립의 근거를 찾고 있다.

“번역이 종속적 위치에서 탈피하고 독자적인 학문으로 성립하게 된 것은 20세기 들어서이다. 그것도 20세기 중반 이후에야 언어학자들의 시선을 끌면서 번역이 언어학의 한 분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김지원 2000, ‘번역 연구의 발전과 번역학의 현황’, 13)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번역학은 자체의 학문적인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하기 시작했다.”(유명우 2000,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231)

국내 최초의 통번역 관련 학회인 국제회의통역학회의 창립에 산파역할을 맡은 최정화 역시 국내 통역번역학이 수입 학문임을 인정하고, 연구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제기한 바 있다.

최정화 회장은 “1978년 통역번역학이 국내에 들어온 뒤 최근 이론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지식 정보 사회학의 현장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서양 통역번역학이 만난다”, 2002-09-02 동아일보)

그렇다면 한국의 번역학은 언제, 어떻게 정립된 것인가? 최근 살펴본 한국 통역번역학회 홈페이지의 학회 소개에는 이 학회의 전신인 국제회의통역학회가 설립된 1998년에는 아직 학문으로서의 통역번역학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우리 한국통역번역학회가 설립된 1998년만 해도 한국에서는 아직 통역번역학이 학문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통역번역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통번역사로만 활동할 뿐 연구는 적극 활성화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통역번역학회 소개 중에서)

한편, 국제회의통역학회 설립 이듬해에 창립된 한국번역학회의 창립취지문에는 과학적인 연구로서의 번역학의 정립⁶³⁾이 이 학회의 사명으로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번역을 학문으로서 체계화시키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번역을 실천하고 장려하여 부실한 국가어문 정책을 바로잡고 수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외래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말과 글을 국제화시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번역학회의 창립이 갖는 역사적 의의가 지대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번역과 번역학의 정립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1999년 10월 30일.” (번역학회 창립취지문 중에서)

마지막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한국 번역학의 현황과 전망을 제시한 바 있는 김정우는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번역학이 대학 내 독자적인 연구분야로 정립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학이 독립된 연구 분야로 정립되어 ‘제도권’ 학문의장에서 논의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김정우 2005, ‘한국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29)

“번역학이 독자적인 연구 분야로 정립되어 이른바 ‘제도권’ 학문의 현장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김정우 2012, ‘한국의 번역학 연구와 국어학의 몇 과제’, 2)

63) 영미어문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된 한국번역학회의 공식 영문명칭은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ion Studies이며, 영미권의 ‘Translation Studies’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학 중심의 ‘Translation Studies’에 근거한 번역학의 정립과 과학적 연구의 지향은 다소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 제시된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번역학은 서구 번역학이 수용된 결과로 2000년 이후에야 학계에서 독립된 연구분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서구 번역학의 수용 이전에도 한국에 번역학에 비견될 학문적 활동이 존재하였는가? 만일 그렇다면 한국 번역학의 전사(前史)는 무엇이었고, 그 해당 시기는 언제였는가?

4.2 한국 번역학의 전사(前史): 역학(譯學)

우리는 한국 번역학의 근대 이전에 해당하는 전사(前史)를 역학(譯學)에서 찾고자 한다. 강신항⁶⁴⁾에 따르면, “‘우리나라 譯學’이란, 19세기 개화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었던 외국어 학습과 이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같은 책에서⁶⁵⁾ 그는 역학이 개화기 이전 우리나라 언어학의 주류를 이루었고, 이 술어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휘 ‘譯學’은 1393년에 조선왕조실록에서 그 초출이 발견된다. 구체적 맥락은 다음과 같다.

<조선왕조실록 太祖 4卷, 2年(1393 癸酉) 10月 27日(己亥) 4번째기사>
○設六學, 令良家子弟肄習。 一兵學, 二律學, 三字學, 四譯學, 五醫學, 六算學。
육학(六學)을 설치하고 양가(良家)의 자제(子弟)들로 하여금 익히게 했으니, 1은 병학(兵學), 2는 율학(律學), 3은 자학(字學), 4는 역학(譯學), 5는 의학(醫學), 6은 산학(算學)이었다.

우리의 ‘譯學’과 중국의 ‘译学’ 사이의 역사적 상관성은 추후 밝히기로 하고, 여기서는 한국 역학의 역사에 대해 조금 더 약술하고자 한다. 조선 태조가 역학을 장려하기 이전 고려시대 충렬왕⁶⁶⁾ 때 이미 通文館을 설치하여 漢語 교

64) 2000, 『韓國의 譯學』, iii.

65) “1894년 (갑오경장)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中國音韻學과 함께 우리나라 언어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역학이라는 술어는 19세기 개화기 이전에 여러 가지로 쓰였다. 우선 외국어 학습과 연구, 또는 외국어 통역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쓰였으며, 외국어 학습기관을 역학이라고도 했다. 또 외국어를 譯語 또는 역학이라 하고…”(2)

66) 고려시대 1276년(충렬왕 2) 通文館 설치 漢語 교육

육을 시켰고, 공양왕⁶⁷) 때는 司譯院에서 吏學을, 漢語都監에서 漢文 교육을 담당하게 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태조⁶⁸) 때 司譯院을 설치하여 漢語를 익히게 했고, 태종⁶⁹) 때는 承文院을 설치하여 吏文 교육을 맡게 하였다.

4.3 한국번역학사: 명칭의 탄생과 분화

한국에서 ‘번역학’이라는 술어는 김효중의 1984년 논문(‘번역학과 여성’, 『女性問題研究』, 13: 179-189)⁷⁰)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술어는 2009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이 발간한 『한국어대사전』에 유일하게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며, 여타 국어사전 또는 백과사전에는 해당 항목이 들어있지 않다. 한편, 번역학과 관련된 기타 술어로는 ‘번역문학’이 김병철의 1975년 저술(『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乙酉文化社)에서, ‘통역연구’는 한국외국어

通文館 忠烈王二年, 始置之, 令禁內學官等參外, 年未四十者, 習漢語. 【禁內學官, 秘書·史館·翰林·寶文閣·御書·同文院也. 并式目·都兵馬·迎送, 謂之禁內九官.】 (고려사 권76 志 권30 百官1)

67) 고려시대 1389년(공양왕 원년) 司譯院에서 吏學 담당
十學 【恭讓王元年, 置十學教授官, 分隸禮學于成均館, 樂學于典儀寺, 兵學于軍候所, 律學于典法, 字學于典校寺, 醫學于典醫寺, 風水陰陽等學于書雲觀, 吏學于司譯院.】 (고려사 권77 志 권31 百官2)

고려시대 1391년(공양왕 3) 漢語都監 설치 漢文 교육
漢文都監 【恭讓王三年, 改漢語都監爲漢文, 置教授官.】 (상계서)

68) 조선시대 1393년(태조 2) 司譯院 설치 漢語 교육
조선왕조실록 <太祖 4卷, 2年(1393 癸酉 / 명 홍무(洪武) 26年) 9月 19日(辛酉) 1 번째기사>

辛酉/置司譯院, 肄習華言.

69) 조선시대 1411년(태종 11) 承文院 설치 吏文 교육
조선왕조실록 <太宗 21卷, 11年(1411 辛卯 / 명 영락(永樂) 9年) 6月 19日(戊申) 1 번째기사>

戊申/改文書應奉司爲承文院, 置判事一正三品, 知事一從三品, 僉知事二從四品, 校理二從五品, 副校理二正六品, 正字二、從七品, 副正字二、正八品。先是, 應奉司專修事大文書,

70) 본 논문의 영문 제목은 ‘The Role of Women in the Science of Translation’인데, 이는 김효중의 번역학이 독일의 ‘Übersetzungswissenschaft’ 전통에 기대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에서 1980년 발간된 단행본(『韓·日語同時通譯研究』, 韓國外國語大學)에서, ‘번역연구’는 정기수의 1993년 논문(‘한국에서의 불문학 번역 연구: 보들레르의 <戀의 꽃>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18: 129-158)에서 처음 등장한다. 다른 한편, ‘통번역학’과 ‘통역번역연구’는 한국의국어대학교에 1997년 설립된 연구소 명칭과 학술지 명칭에서, ‘통역학’은 1998년 설립된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 명칭에서, ‘통역번역학’은 1999년 창간된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발간사에 최초로 나타난다.

2007년경 한국학술진흥재단(現 한국연구재단)에서 작성한 연구분야 분류표에는 번역학이 인문학 내 ‘통역번역학’과 그 하위분야로 ‘통역번역’, ‘통역’, ‘번역’, 언어학 하위분야로 ‘번역, 문학 하위분야로 ‘번역문학’, 영어외문학 하위분야로 ‘영어통역번역학’ 등으로 분산되어 편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번역학’이라는 술어가 국내 학술제도 상의 공인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번역학의 분산된 편제에 대해 김정우는 2012년 논문에서 ‘번역학의 태생적 기반’⁷¹⁾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사실, 한편으로 국내 최초의 번역학 관련 학술조직이 통번역 실무자들이 설립한 한국통역번역학회(舊국제회의통역학회)이고, 그 학회지가 『(국제회의)통역과 번역』인만큼 번역학의 국내 공식 학명이 ‘통역번역학’이 되었고 ‘통역번역’, ‘통역’, ‘번역’이 그 하위 영역으로 분류된 것은 역사적 귀결이라 볼 수 있다⁷²⁾. 다른 한편으로, 다른 언어학 분야의 하위 영역에는 ‘~통역번역학’이 포함되지 않고 오직 영어외문학의 분류표에 ‘영어통역번역학’이라는 분야가 포함된 것은 국내 번역학 연구가 한영통번역 교수자와 영어외문학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현실

71) “현재 한국연구재단(NRF)의 연구분야 분류표상에서 번역과 관련된 항목을 찾아보면, 인문학-언어학-번역, 인문학-문학-번역문학, 인문학-영어와 문학-영어통번역학, 인문학-통역번역학-통역번역/통역/번역 등 네 가지 체계로 각기 달리 편제되어 있다. 이러한 편제는 번역학의 태생적 기반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있다.” (김정우 2012, ‘한국의 번역학 연구와 국어학의 몇 과제’, 2 주석 1)

72) 한국통역번역학회 홈페이지의 학회 소개에서 발췌한 다음 구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통역번역학이 언어학의 하위 분야인 것처럼 인식 되었으나, 현재는 한국통역번역학회가 통역번역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받는데 초석을 다졌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와 이론을 겸비한 여러 교수님들은 실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나머지, 언어학 하위분야로 ‘번역’이 포함되고 문학 하위분야로서 ‘번역문학’이 편입된 것 역시, 언어학 및 문학 연구와 번역의 일반적 연관성을 상기할 때 충분히 이해된다. 다만, 이렇게 해서, 한국 번역학의 명칭이 국제적 동향(Translation Studies/Übersetzungswissenschaft/traductologie)과는 달리 ‘통역번역학 또는 통번역학(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tudies)’으로 통용될 경우 연구와 국제교류 면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마리 스텔-혼비가 우려한 바와 같이, ‘번역학의 과도한 영어화(Anglicisation of Translation Studies)’는 번역학의 국제화에 기여하기 보다는 번역학의 영역을 다시금 언어학 내지 영어학의 하위 분야로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4.4 한국번역학사: 학술적 기점

한국번역학사에는 1972년 홈즈의 논문이나 1976년의 국제학술대회처럼 그 시작을 알리는 학술 이벤트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우리는 번역학과 관련된 각종 출판물들(학술논문, 학위논문, 단행본, 번역서 등)을 중심으로 한국 번역학의 학술적 기원을 찾아보려고 한다.

먼저, 국내 최초의 번역 관련 학술논문은 김영덕의 1952년 발표 ‘諺解와 翻譯(1)’(『국어국문학』, 1집, 15-16)이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발간 『言語와 言語學』 창간호(1973)에 실린 박순함 외 4인의 논문이 국내 최초의 통역 관련 학술논문이었다.

정화자의 1969년 발표 ‘번역박통사와 박통사언해의 비교연구’(이화여대 국문과 석사)와 김효중의 1987년 발표 ‘박용철의 하이네시 번역과 수용에 관한 연구’(영남대 국문과 박사)가 번역 관련 국내 최초의 석·박사논문이었고, 김영조의 1982년 발표 ‘A study of simultaneous interpretation: theory and practice’(경희대 응용언어학 박사)와 요육광의 1983년 발표 ‘동시 통역의 제문제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영어교육전공 석사)가 최초의 통역 관련 석·박사논문에 해당된다.

임영빈이 1959년 출간한 『성서번역의 비화』(대한성서공회)는 유진 나이다(Eugene A. Nida)의 *God's Word in Man's Language*를 한국어로 옮긴 것으로

최초의 번역 관련 역서였다. 그리고, 박용삼이 1990년 출간한 『번역학이란 무엇인가』(숭실대학교출판부)은 베르너 콜러(Werner Koller)의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1979)을 번역한 서구 번역학 저술의 최초 번역서로 꼽힌다.

김병철의 1975년 저서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을유문화사)가 최초의 번역 관련 저술이었다면, 송효인의 1975년 영문저서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동국대학교출판부)는 언어학에 토대를 둔 최초의 번역학 관련 저술이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1980년 간행된 『韓·日語同時通譯研究』는 최초의 통역 관련 저술이었다. 더불어, 송요인이 1984년 출간한 *Topics in translation studies*(한신문화사)와 김효중의 1998년 저서 『번역학』(민음사)은 ‘Translation Studies’와 ‘번역학’의 제목을 단 국내 최초의 저술에 해당된다. 끝으로, 전성기의 2008년 저서 『번역인문학과 번역비평』(고려대학교출판부)은 한국학자가 최초로 독자적인 번역학 연구방법론의 가능성을 탐구한 성과였다.

4.5 한국번역학사: 제도적 기점

이제 한국번역학사를 구분 짓는 교육·학술 제도상의 사건들을 열거해보기로 하자. 1971년 한국번역가협회가 창립되어 국내 번역가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도모할 조직이 만들어졌고, 197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동시통역대학원⁷³⁾이 설립됨으로써 체계적인 통번역 전문인력 양성의 길이 열렸다. 이후 한동대 통역번역대학원(1995),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1996), 중앙대 국제대학원(1996), 성균관대 번역TESOL대학원(2000), 제주대 통역대학원(2000), 선문대 통역번역대학원(2001), 부산외대 통역번역대학원(2003), 서울외국어대학원대 통역번역대학원(2003), 계명대 통번역대학원(2006) 순으로 통번역 전문교육과정이 대학에 설치되었다. 한편, 2000년에 세종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에 번역학 전공이 처음 설치되어 번역학 연구인력의 양성이 시작되었다.

1992년 연세대학교 부설 번역문학연구소가 처음 만들어진 후, 1997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통역번역연구소가 설립되었고, 학술지 『통번역학연구』가 발간되기 시작했다. 21세기 들어서 건국대 동화와번역연구소(2000), 이화여대 통

73) 1980년 통역대학원으로, 1997년 통번역대학원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른다.

역번역연구소(2005), 동국대 번역학연구소(2008), 고려대 번역과레토릭연구소(2009) 등이 계속적으로 창립되어 전문화된 번역학 연구의 환경이 마련되었다.

1996년 문화부 산하에 (재)한국문학번역금고가 설립되었고, 2001년 (재)한국문학번역원으로 재창립되었으며, 2005년 한국문학번역원으로 개칭되어 한국문학의 해외 번역과 전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정부 산하기관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이 설립되어 그간 민족문화추진위원회가 추진해온 한문고전의 국역사업과 번역인력 양성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1998년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Korean Society of Conference Interpretation)가 통번역 실무자들⁷⁴⁾에 의해 창립되었고, 1999년 제1회 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학술지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이 창간되었다. 2003년 파리3대학교 출판부와 공동으로 *Forum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을 발간하기 시작했고, 2008년에는 기존의 학회지가 『통역과 번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9년 학회명도 한국통역번역학회(Korean Society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tudies)로 바뀌어 현재에 이른다.

1999년 국내 대학의 영미어문학 전공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국번역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Translation Studies)가 창립되어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00년부터 학술지 『번역학연구』를 발행하고 있다. 이후, 2003년에 통번역교육학의 체계화를 위한 한국통번역교육학회가, 2006년에 프랑스 및 독일어문학 전공자들이 중심이 된 한국번역비평학회가, 끝으로 2009년에 한국고전번역 실무자와 한국고전 연구자들이 설립한 한국고전번역학회가 뒤를 이었다.

2000년 고려대학교출판부에서 ‘번역학총서’가 발간되기 시작한 이후, 동인출판사 번역학총서(2008~)와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학총서(2010~)가 번역학 연구의 확산에 가세하였다. 2009년 한국번역학회 주관으로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1st ed.)』이 번역출간되어 열악한 국내 연구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74) 이 점은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발간사에서 발췌한 다음 구절들에 잘 나타나 있다. “1998년 4월18일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의 출범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국제회의통역, 전문번역계를 명실상부하게 선도할 학회가 탄생된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국제회의통역학회는 국제회의통역과 전문번역 활동에서 축적된 경험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광범한 연구조사의 임무를 자임해야 할 입장입니다.”

2012년 서구의 번역학 여름학교를 모델로 하여 국내 번역학 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고려대학교에서 번역학 겨울학교가 시작되었고, 2013년에는 한국의 국어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계속되었으며, 2014년에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릴 계획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본격적인 한국번역학사 기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 전제로서 독립학문으로서의 번역학의 성립조건, 서구 번역학의 기원과 기점, 한국 번역학의 기원과 정립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이제 앞의 논의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점을 두 가지만 선택하여 필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번역학이 분과학문으로 인정받으려면 제도화가 실현되어야 하고, 특히 대학과 사회에서 번역학의 위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학 내에 번역학과와 번역학 전공교수직이 설치됨으로써 단순히 통번역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⁷⁵⁾ 앞에서 소개한 크리슈난과 질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한편, 한국 번역학의 전사(前史)로 소개된 譯學은 통번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담론의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전문화된 통번역 교육의 전통으로 남아있는 반면, 오늘날 번역학에 관한 국내의 학술적 활동과 이론적 탐구는 서구의 연구와 맞닿아 있다. 이 점에서 국내 번역학의 현황은 서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역학의 전통과 국내 어문학계의 연구성과를 아우르는 한국적 번역학의 추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통역번역학회(舊국제회의통역학회)가 2013년으로 창립 15주년을 맞았

75) 기테온 투리도 스페인의 경우를 들어 대학 내에 번역학과가 설치되어 제도적 차원에서 번역학이 분과학문으로 인정받게 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번역학 연구에 종사하게 되고 보다 많은 번역학 박사논문의 산출이 촉발되게 된다고 확인한 바 있다. cf. (2008) 'Interview in Toronto', Anthony Pym, Miriam Schlesinger, and Daniel Simeoni (eds.) *Beyond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404.

고, 한국번역학회도 2014년이면 창립 15주년을 기념하게 된다. 서구 번역학의 역사에 비해 아직 미비하지만, 동아시아권에서 중국, 일본보다 한국에 먼저 학회가 창립되는 등 번역학의 제도화가 매우 신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형편이며, 따라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이 점에서 아래 인용한 글에서 중국 번역학계의 대표적 인물인 张南峰이 지적한 사항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는 동아시아권 내에서 대만을 포함한 중국의 번역학이 유일하게 독립적인 분과학문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번역학은 ‘실천지향적practice-oriented’이고, 순수 번역학 연구는 극소수의 전유물에 불과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중국번역학의 확고한 분과학문화 주장에 대해 본 논문의 필자는 결코 동의하지 않지만⁷⁶⁾ 한국의 번역학이 실천지향적이라는 지적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이다.

“At present, the Chinese mainland and Hong Kong (with Taiwan catching up rapidly since 2000) appear to be the only regions in East Asia - that is, east of India - where translation studies constitutes an active research area and is widely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academic discipline. In other East Asian countries, where translation studies remains largely practice-oriented⁴ on Thailand, Malaysia and South Korea), pure translation studies is the pursuit of just a few ‘idiosyncratic’ scholars.

Note 4 : See, for example, the articles in *Translation in Asia: Past and Present* (Hung and Yang 2000)” (Nam Fung CHANG, 2009, 313)

한편, 베르너 콜러가 1979년 저서에서 지적한 번역학의 합법성의 위기는 서구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한국 번역학계가 오늘날 처한 현실이기도 하다.

“지난 10-15년 동안 몇몇 대학에서는 나름대로 번역학을 독자적인 분과학문으로서 개설해 왔다. 특히, 번역 및 통역연구소와 응용 언어학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이 그러했다. 그러나 번역학 자체에 대한 이해 *Selbstverständnis von der Übersetzungswissenschaft* 내지는 다른 분과학문들 속

76) 중국의 번역학 연구 동향을 소개한 최지영(2005: 2)와 김혜림(2012: 49)의 논문에도 중국의 번역학이 독립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직 확립하지 못하여 분과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

에서의 번역학에 대한 이해가 전혀 명백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는데다가 문제점 또한 없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번역의 실제 *Übersetzungspraxis* 및 여러 다른 학문분과들(비교언어학, 대비언어학, 문체론, 비교문예학, 텍스트학, 정보학, 언어자료처리, 자동언어분석)과 관련하여 볼 때, 번역학이 처해있는 합법성의 위기 *Legitimationskrise der Übersetzungswissenschaft*는 극복되지 않고 있다.”(Werner Koller 著, 박용삼 譯,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1979/1990, XI)

한국의 번역학은 지난 15년간 쌓아올린 외형적 성장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번역학이 국내 학계 및 대학에서 합법적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시기이다. 알렉시 누스가 서구 번역학사 40년을 맞아 서구 번역학계에 주문한 ‘자기 성찰(examen de conscience)’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요청이라고 본다. 이제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 번역학의 발전단계와 중국, 일본의 사정을 염두에 두고, 국내 번역학의 탄생과정을 뒤로 한 채, 한국 번역학이 힘찬 도약을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과감히 제시해보기로 하자.

첫째,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추구하자. 번역가와 번역학자, 통역과 번역, 번역 교육과 번역학 교육 간의 대립관계를 극복하고 상호협력과 역할분담을 도모하기로 하자. 전문통번역대학원의 연구력 제고와 대학 내 번역학과 및 번역학대학원 설치에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

둘째, 번역학 앞에 놓인 자율성(autonomy)과 학제성(interdisciplinarity)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통섭과 융합의 시대에 번역학은 인접학문(언어학, 비교문학, 언어철학, 인지심리학, 사회학, 문화학, 미디어학, 여성학 등)과의 교류에 힘쓰면서도 분과학문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셋째, 번역학의 학문적 통일성을 추구하자.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분야 분류표 내에 번역학을 필두로 하위 분야 명칭의 통일 및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국내 번역학의 지형도를 설계하여 세부 연구분야를 명확히 제시하고, 번역학 백과사전 및 용어집을 발간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된 연구를 가능하도록 애쓴다. 유관학회 간 상생 및 통합의 노력을 지속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며, 워크숍 및 특별연구과정과 같은 학문후속세대의 체계적 양성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번역학의 사회적 관여성을 강화하자. 정부 내 번역업무를 총괄하는 번역청과 같은 부처를 조속히 설치하도록 노력하여, 장기적인 국가 번역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통번역사 인증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번역 요율 및 표준계약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여, 통번역 전문인력의 권익신장을 추구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어(백과)사전에 ‘번역학자’ 항목이 등재되게 되면, 국내 번역학의 사회적 인정(social recognition)은 실현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신항 (2000) 『韓國의 譯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지원 (2000) 「번역 연구의 발전과 번역학의 현황」, 『번역학연구』 1(1): 9-31.
- 김지원 (2004) 「번역학의 어제와 오늘」, 『번역학연구』 5(1): 55-75.
- 김정우 (2005) 「한국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번역학연구』 6(2): 29-57.
- 김정우 (2012) 「한국의 번역학 연구와 국어학의 몇 과제」, 『우리말글』 56: 1-41.
- 김혜림 (2012) 「중국의 번역연구 동향」, 『번역학연구』 13(4): 29-54.
- Daum 국어사전: <http://dic.daum.net/index.do?dic=kor>
- 베르너 콜러 Werner Koller (1990)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박용삼 역. 서울: 송실대학교 출판부.
- 유명우 (2000)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연구』 1(1): 229-248.
- 조선왕조실록 :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 최지영 (2005) 「중국 통역번역 연구의 발전 과정과 현황」, 『중국어문논역총간』 14: 1-20.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 <http://www.riss.kr/index.do>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http://db.history.go.kr/>
- Baker, Mona (ed.) (2001)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1st edition. London: Routledge, 277.
- Basalamah, Salah (2012) ‘Un bilan de 40 ans de traductologie: Entrevue avec Alexis Nouss’, *Global Media Journal – Canadian Edition* 5(1): 29-37.
- Bernardo, Ana Maria (2007) ‘20th Century Approaches to Translation – A

- Historiographical Survey’, J.C. Santoyo y J.J. Lanero (eds.) (2007) *Estudios de traducción y recepción*, Universidad de León, Servicio de Publicaciones, 83-99.
- BITRA. Bibliography of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English Version: http://aplicacionesua.cpd.ua.es/tra_int/usu/buscar.asp?idioma=en
- Bocquet, Claude (2006) ‘La traductologie: préhistoire et histoire d’une démarche épistémologique’, Michel Ballard (éd.) (2006) *Qu’est-ce que la traductologie?* Arras: Artois Presses Université, 23-36.
- Brems, Elke et al. (2012) ‘A discipline looking back and looking forward. An introduction’, *Target* 24(1): 1-14.
- Caminade, Monique (2011) ‘L’institutionnalisation de la formation des traducteurs et des interprètes au XX^{ème} siècle’, Harald Kittel, Armin P. Frank, Norbert Greiner (eds.) (2011) *Übersetzung/Translaton/Traduction.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zur Übersetzungsforschung/A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Encyclopédie internationale de la recherche sur la traduction. 3. Teilband.* Berlin: Walter de Gruyter, 2627-2634.
- Caminade, Monique & Anthony Pym (2001) ‘Translator-training institutions’, Mona Baker (ed.) (2001)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1st edition. London: Routledge, 280-285.
- Chang, Nam Fung (2009) ‘Repertoire Transfer and Resistance. The Westernization of Translation Studies in China’, *The Translator* 15(2): 305-325.
- Chang, Nam Fung (2011) ‘The Development of Translation Studies into a Discipline in China’, Rakefet Sela-Sheffy & Gideon Toury (eds.) *Culture Contacts and the Making of Cultures. Papers in homage to Itamar Even-Zohar*,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Unit of Culture Research. (http://www.tau.ac.il/tarbut/Publications/IEZ-Homage/Even-Zohar_Homage_Book.pdf)
- D’hulst, Lieven (1995) ‘Pour une historiographie des théories de la traduction: questions de méthode’, *TTR* 8(1): 13-33.

- D'hulst, Lieven (2001) 'Towards a metahistoriography in translation research', Workshop Conference: « Translation Theories and Translation East and West » (University College London, 9-10 July 2001).
- Fukuchi Meldrum, Yukari (2007) 'Japanese Translation Studies: A New Discipline', Presentation for Prince Takamado Japan Centre, University of Alberta (November 22, 2007).
- Gentzler, Edwin (1993) *Contemporary Translation Theor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Gentzler, Edwin (1998) 'Foreword', Susan Bassnett & André Lefevere (eds.) *Constructing Cultures, Multilingual Matters*, ix-xxii.
- Gile, Daniel (2012) 'Institutionalization of Translation Studies', Yves Gambier & Luc van Doorslaer (eds.) (2012),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ume 3,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73-80.
- Goffin, Roger (1971) 'Pour une formation universitaire *sui generis* du traducteur', *Meta* 16(1-2): 57-68.
- Goffin, Roger (2006) 'Aux origines du néologisme traductologie', Martine Bracops et al. (2006), *Des arbres et des mots*, Bruxelles: Éditions du Hazard, 97-107.
- Goffin, Roger, P. Hurbin, J.M. Vandermeerschen (1968) 'Centre international d'étude de la traduction à Bruxelles', *Babel* 14(3), 143.
- Harris, Brian (2011) 'Origins and conceptual analysis of the term 'traductologie /translatology'', *Babel* 57(1): 15-31.
- Heilbron, Johan & Gisèle Sapiro (2002) 'La traduction littéraire, un objet sociologique',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44, 3-5.
- Heilbron, Johan, et Gisèle Sapiro, (2007) 'Pour une sociologie de la traduction: bilan et perspectives', *Pour un espace des sciences sociales européen (ESSE)*, 2. <<http://www.espaceesse.org/art-257.html>>
- Holmes, James S. (1988)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ion Studies', James S. Holmes, *Translated!: Papers on Literary Translation &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pi, 67-80.

- Krishnan, Armin (2009) 'What are Academic Disciplines? – Some observations on the Disciplinarity vs. Interdisciplinarity debate', NCRM Working Paper. National Centre for Research Methods.
<http://eprints.ncrm.ac.uk/783/1/what_are_academic_disciplines.pdf>
- Lambert, José (1991) 'Shifts, Oppositions and Goals in Translation Studies: Towards a Genealogy of Concepts', Kitty M. van Leuven-Zwart & Ton Naaijkens (eds.) *Translation Studies: the State of the Art*, Amsterdam: Rodopi, 1991, 25-37.
- Lambert, José (2013) 'Prelud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discipline', Carmen Millán and Francesca Bartrina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7-27.
- Lefevere, André (1978) 'Translation Studies : The Goal of the Discipline', James S. Holmes, José Lambert & Raymond van den Broeck (eds.) *Literature and Translation: New perspectives in literary studies*, Leuven: ACCO, 234-235.
- Munday, Jeremy (2010) 'Translation Studies', Yves Gambier & Luc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ume 1,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s, 419-428.
- Munday, Jeremy (2012)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3r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Oustinoff, Michaël (2007) 'Les « translation studies » et le tournant traductologique', *Hermès* 49: 21-28.
- Palumbo, Giuseppe (2009) *Key Terms in Translation Studies*, London: Continuum. [Translation Studies]
- Pym, Anthony (1992) *Translation and Text Transfer. An Essay on the Principle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 Shuttleworth, Mark & Cowie, Moira (1997)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Traductology, Translation Studies, Translatology]
- Snell-Hornby, Marie (1988/1995)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Revised edi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Snell-Hornby, Marie (1991) 'Translation Studies – Art, Science or Utopia',
Kitty M. van Leuven-Zwart & Ton Naaijken (eds.) *Translation Studies: the State of the Art*, Amsterdam: Rodopi, 1991, 13-23.
- Snell-Hornby, Marie (2006)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John Benjamins.
- Snell-Hornby, Marie (2010) 'Is Translation Studies going Anglo-Saxon? Critical comments on the globalization of a discipline', Daniel Gile, Gyde Hansen, Nike K. Pokorn (eds.) *Why Translation Studies Matter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97-103.
- Takeda, Kayoko (2012) 'The Emergence of Translation Studies as a Discipline in Japan', Nana Sato-Rossberg & Judy Wakabayashi (eds.)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in the Japanese Context*, London: Bloomsbury, 11-32.
- Tan, Zaixi (2008) 'Towards a Whole-Person Translator Education Approach in Translation Teaching on University Degree Programmes', *Meta* 53(3): 589-608.
- Wakabayashi, Judy (2012a) 'Japanese translation historiography', *Translation Studies* 5(2): 172-188.
- Wakabayashi, Judy (2012b) 'Situating Translation Studies in Japan within a Broader Context', Nana Sato-Rossberg & Judy Wakabayashi (eds.) *Translation and Translation Studies in the Japanese Context*, London: Bloomsbury, 33-52.
- 柳父章 '「翻訳学」はなぜないのか' <<http://www3.ocn.ne.jp/~manuke/trans.htm>>
- 牛云平 (2007) 「翻译学的名与实」, 『河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32(5): 129-134.
- 许钧, 穆雷 (2009) 「中国翻译学研究30年(1978-2007)」, 『外国语』 32(1): 77-87.
<http://joongang.joinmsn.com/article/240/10418240.html?ctg=>
<http://zh.wikipedia.org/wiki/翻译研究>
<http://baike.baidu.com/>
<http://ja.wikipedia.org/wiki/翻译研究>
<http://www3.ocn.ne.jp/~manuke/trans.htm>

[Abstract]

**A History of Translation Studies in Korea:
Prerequisites and Preliminary Remarks**

Yi, Yeong-Houn
(Korea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premises and conditions for writing the history of Translations Studies in Korea. We have proceeded with our work in two steps. First, we have examined the constituting factors of the Translation Studies as academic discipline, the founding history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Western Translation Studies. After a brief look at the situation of Translation Studies in China and Japan, we have discussed the origin and the starting process of the '*Beonyeokhak*', name of Translation Studies in Korea. We have tried also to describe the successive stages of the development of the *Beonyeokhak* and we have finished our work by proposing the four tasks of the Korean Translation Studies.

▶ Key Words: Foundation of Translation Studies, Characteristics of Academic Discipline, Yeokhak(譯學), Beonyeokhak(翻譯學), History of Translation Studies in Korea

이영훈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erasme@korea.ac.kr

관심분야: 번역평가, 번역사회학, 한국번역학사

논문투고일: 2013년 3월 14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6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6일